

“‘쪼개기’로 들어서서는 태양광에 마을 풍비박산”

장흥 진산리, 11MW 태양광 발전시설 1년째 반대

“군이 불법형질변경 방관, 야생 동물 피해 심각”

군 “사업지 대폭 축소…주민 피해 줄이려 노력”

장흥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개발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발전부지를 일명 ‘쪼개기’로 분할해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장흥군과 장평면 진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장평면 진산리 산 15번지 일대 11만4천㎡(3만4천500여평) 부지에 11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진산리 주민들은 군수에게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군수와의 면담도 추진하며 태양광발전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주민들의 발전사업 추진 반대이유는 크게 산사태 우려 증가와 이에 따른 마을 피해 확대, 불법 형질변경 부지에서의 공사, ‘쪼개기’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왜곡이다.

발전시설 예정부지는 진산 마을 뒷산이다. 이 곳은 빗물이 한쪽으로 몰리는 가파른 경사지여서 이전부터 홍수피해가 자주 일어났었던 상황에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산의 훼손은 더 심해져 산사태가 확대, 산 아래 농

경지는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로 산림과 농경지가 훼손되면 동물 서식지가 파괴돼 주변 농경지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사업 예정지 주변 2곳에 산림벌목이 진행돼 지난 해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단순 벌목 공사라도 피해가 커지는데 본격적으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한 부지에 ‘친환경’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에 돼지 농장을 지으려던사업주가 지난 2011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뒤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농장 사업이 여의치 않자 깎았던 산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쪼개기’를 통해 각각 신청했고, 이 신청서에 엉터리 현지 정보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진산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산에 살던 멧돼지가 마을 입구까지 내려와 논밭을 파헤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지난 해 8월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마을을 습격해 마을을 속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사업자가 산을 무차별적으로 깎으면서 마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군마저 이 같은 상황을 모른척하고 있다”고 고소연했다.

주민들은 “병원 폐기물 소각장은 물론 악취와 집중수로 민원이 잦은 퇴비공장 3곳, 마을을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등 마을은 이미 혐오 시설로 갇혀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장흥군이 우리 마을을 버렸다’고 자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기 좋고 물 맑던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합법적인 사업절차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해당 사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진산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훼손될 것이 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국가기능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에게 두차례 걸쳐 요구했고, 9년전 토지 훼손 부분도 처벌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지를 21MW에서 11MW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며 “다만 사업지에 산사태 1·2등급 지역도 있고 식생보존 1등급 지역도 포함돼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보완되면 개발행위에 대한 보완과 산지 전용·농지전용에 대한 보완도 거치게 될 것”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지 쪼개기는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과 연계된 방침이었다. 제가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또 향후 20년 동안 마을발전기금 지급 등 마을 주민들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태양광발전 쪼개기 ▼

쪼개기는 원래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로, 제개발지역의 토지보상금이나 입주권을 노리고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방식을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적용한 것이다. 쪼개기는 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MW 이하의 용량마다 각각 다른 사업자를 두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한다.

견물생심? 주인없는 물건 탐내면 ‘큰코’

세차장에 두고간 보석 슬쩍한 50대 남성 입건 예식장서 하객 옷 훔친 60대 등 사례 잇따라

견물생심에 주인없는 물건들을 탐내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세차장에 놓고간 보석 원석을 훔친 A(52)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경 광주시 북구 한 셀프세차장에서 B(61)씨가 두고간 500만 원 상당의 마노원석 13점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마노는 수정류와 유사한 석영 광물로 모양이 말의 뇌수를 닮았다고 해 마노(瑪瑙)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빛깔이 아름답고 다양한 장신구로 제작되곤 한다.

이날 차량 세차를 위해 세차장을 찾은 A씨는 B씨가 두고간 마노 원석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이를 챙겨 달아났다.

B씨는 명절을 앞두고 세차하기 위해 마노 원석이 담긴 쇼핑백을 차 안에서 잠시 빼뒀다가 잊은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예식장에서 다른 하객의 옷을 훔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예

식장에서 옷을 훔친 C(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예식장에서 다른 하객의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다.

C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16분경 광주 서구 한 예식장 식당에서 D(32·여)씨의 핑크조끼(160만원 상당)와 조끼 안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하객으로 예식장을 찾은 C씨는 다른 결혼식 하객인 D씨가 폐백식 마무리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 떨어진 현금과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물건을 잊지않고 꼭 챙기는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안결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무등산 얼음바위 ‘굉굉’ 10일 오전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850m 지점 얼음바위가 강추위로 굉굉 얼어붙은 가운데 등산객들이 얼음을 보며 산행을 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6605@srb.co.kr**

구제역 여파에 민속행사 연기·취소 잇따라

시립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북구 마을 행사 미루기도

행정안전부의 지난 1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행사 자제 권고 요청에 따라 민속 행사들의 연기 또는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물관측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최대 1만여명이 모이는 행사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 주민들의 참석도 많은 편이며 야외행사다 보니 구제역 발생 이후 확산 경로 추정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시풍습의 전통을 잇는 행사로 지

금이 시기를 놓치면 전통을 잇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마을 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대보름을 맞아 16일부터 19일까지 평촌마을, 충효동, 용봉동, 삼각

동, 문흥동, 용전동 등지에서 진행되는 당산제 등 민속행사 일부가 취소·연기됐다.

북구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이번 구제역 여파로 인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며 “정월대보름이란 세시풍습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이기에 연기는 사실상 취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발판소독기에 쓰일 약품 등을 구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자제돼 구제역 확산 우려 없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28년 연속 방문자·선호도 1위

광주일자리 사랑방 JOB으로 通(통)합니다



광주 300대 기업 채용관

평균 연봉, 매출 등 기업정보 완벽수록



요식 브랜드 전문관

프랜차이즈 정보부터 출퇴근거리 계산까지



미용/뷰티 전문관

유명 헤어/네일샵 채용정보 복지/근무환경 상세제공



병원/의원 전문관

병원 관련 일자리 총망라 병상수, 진료과목, 병원정보



웹사이트 <http://job.sarangbang.com>
모바일 m.sarangbang.com

사랑방 JOB